

2026 인천아트플랫폼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공모 최종 심의 결과 안내

인천아트플랫폼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공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6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공모의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6.

최종 선정자 명단

1. 인천아트플랫폼 2026년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선정자

가. 시각예술부문(8개월/2026년 4월 ~ 2026년 12월)

번호	접수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202602120057	신O엽	1437
2	202602120077	홍O림	3008
3	202602120086	유O우	9001
4	202602130131	이O호	1301
5	202602130180	김O은	9249
6	202602130182	정O경	9146

나. 공연예술 부문(8개월/2026년 4월 ~ 2026년 12월)

번호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202602130107	손O예	7387

다. 다원예술 부문(8개월/2026년 4월 ~ 2026년 12월)

번호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202602130172	조O주	5268

예비 선정자 명단

- 인천아트플랫폼 2026년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예비 선정자

구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202602130181	소OO
차순2	202602130117	김OO
차순3	202602050013	정OO
차순4	202602130224	송OO

※ 선정자 중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개별 연락 예정

스튜디오 입실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 스튜디오 입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실기간 : 2026년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예정

○ 오리엔테이션 : 2026년 4월 17일(금), 14: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다목적실 예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계약서 작성, 사업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튜디오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준비사항 : 오리엔테이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요

※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문의

○ 이메일 : incheonartplatform2009@gmail.com

○ 전화 :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공모 담당자(032-760-1008)

※ 문의 가능시간 : 평일(월~금) 10:00~17:00, 12:00~13:00 제외

□ 별첨

2026 인천아트플랫폼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공모 심의평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 <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공모에는 총 227팀이 지원했으며,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의를 통해 총 16팀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8팀의 예술가를 선발했다. 올해 인천아트플랫폼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2024-2025년도 인천 지역의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국내 예술가 대상으로 모집 단위를 확장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중점에 두고 공모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작가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작품을 창작하고, 이 과정에서 공개 워크숍과 한 달간의 스튜디오 오픈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요구되었다.

심의에서는 이번 공모에서 주된 변화로 설계된 프로젝트 계획을 바탕으로 주제를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과 결과를 공유하는 여러 실천들의 구체적 타당성을 주의 깊게 살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참여 워크숍과 프로젝트 결과발표 계획의 실행 가능성, 시의성, 효과성을 면밀히 살폈으며 지원자들의 작업 경향 및 개별 창작 활동의 맥락을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인천 지역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였다.

올해는 기술적 변화에 따른 양상과 그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다룬 제안들이 많았으며, 인천의 물리적, 역사적,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흥미로운 리서치와 프로젝트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미디어, 영상, 퍼포먼스 분야가 강세를 보였으며, 비가시적 실험 작업들이 동시대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심도 있고 사려 깊은 내용들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유행한 트렌드나 밈을 다룬 작업, 장르적 특성을 새롭게 재해석한 작업 등이 흥미로웠고,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술적 해석을 통해 서사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신진작가의 도전에서 중진의 실험적 도약까지 다양한 프로젝트 계획안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

금번 프로젝트 공모에 응모한 내용들을 심의하면서 작가, 기획자, 비평가들의 높은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작품성이 뛰어나 평가 및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선정 규모가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 예술창작공간의 지원 분야 및 대상의 확대가 작가, 이론가, 다원예술가, 공연예술가의 지원내용과 퀄리티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새롭게 설계된 프로젝트 결과 발표 및 워크숍은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로와 경험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레지던시”라는 창작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시기에 장기간(한 달) 자신의 스튜디오를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행정적 설계와 검토가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시민과의 교류 및 관계성의 확장을 담보한 보다 실질적이고 활기찬 창작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유진상(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박지선(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공동대표, 前인천아트플랫폼 운영자문위원(6기))

오세원(씨알콜렉티브 디렉터, 재단법인 일심 이사장)

안소연(미술비평가)

공규현(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본부장,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